
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배포일자 2021년 12월 1일(수) 총 3매			
담당 부서 보건 환경 연구원	담당 자 • 기후대기과 이현주 ☎440-5471 • 담당자 조영성 ☎440-5472			
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즐거로운 도시생활의 비법, 싱그러운 도시 숲 이야기

### - 피톤치드 가득한 숲으로 가자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시민들의 건강한 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 숲 기능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.

보건환경연구원은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인천 도시 숲 기능성 조사를 실시하고 잘 가꾼 도시 숲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과학적으로 검증했다.

먼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량산산림휴양공원, 함봉·계양·중앙근린공원 등 기존 산림공원 4지점과 맑은내·석남녹지 도시바람길 숲, 인천계양 초등학교,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등 신규조성 숲 4지점을 대상으로 피톤치드 10종, 음이온수, 환경소음도 및 온·습도를 측정·비교한 결과,

도시 숲의 피톤치드 평균농도는 242 pptv로 대조군 농도 64 pptv에 비해 약 3.8배 높았다. 또한 청량산산림휴양공원 등 기존 산림공원 피톤치드 농도는 279 pptv로 맑은내도시바람길 숲 등 신규 도시 숲(102 pptv)에 비해 약 2.7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.

더불어 도시 숲의 평균 기온은 대조지점에 비해 약 3.0℃ 낮고, 상대 습도는 13.0% 높았다.

나뭇잎은 숲 지붕으로 그늘을 만들어 체감온도를 낮추고, 잎의 증산 작용을 통해 주변의 온·습도를 조절하며 일반적으로 ‘공기비타민’으로 불리는 음이온이 도심 대기(314 개/cm<sup>3</sup>)보다 숲(869 개/cm<sup>3</sup>)에서 평균 2.8배 높은 것 또한 도시 숲의 긍정적인 효과이다.

아울러 도시 숲이 도심 지역에 비해 3.9 dB 낮은 소음도를 나타내 도시 숲의 환경소음 저감 효과도 확인됐다. 이는 빼곡한 나무들이 도심과 숲을 단절시키는 방음림 효과로 이어져 교통 및 생활소음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이다.

따라서 인천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각종 도시 숲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일상에 지친 시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역할 또한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도시 숲 조사를 통해 도시 내 나무와 숲의 가치를 알고 도심 재생의 핵심 인프라로 구축함으로써, 도시공원이나 가로수가 도시계획의 부속물이 아닌 폭염이나 미세먼지, 환경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도시의 허파와 같은 기반시설이라는 시민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## <붙임> 도시 숲 기능성 조사 시료채취 전경



<청량산산림휴양공원>



<계양근린공원>



<중앙공원>



<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>

※ pptv는 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공기 중에 물질의 부피가 1조분의 1(parts per trillion)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며 뒤에 v가 붙으면 부피비(volume)를 나타냄

※ dB(데시벨)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